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업인안전팀

## 농업인 안전보건, 기술과 사람을 잇는 최전선



농업은 우리 삶의 바탕을 이루는 필수 산업이지만, 높은 재해율로 농업인의 안전과 건강은 늘 위협받고 있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고령화 심화와 이상기후 같은 환경 변화는 농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농업 환경에 새로운 안전보건 과제를 던져준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은 농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농작업 안전 재해 제로(ZERO)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책, 기술, 교육, 현장 컨설팅을 융합한 혁신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농업인 안전보건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농업인안전팀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이정림 사진 강관신

# 농촌진흥청 농업안전팀

## 농업인 안전을 선도하는 '융복합 전담 조직'

농촌진흥청 농업지원국 농업안전팀은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근거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을 총괄하는 국내 유일의 과단위 전담 조직이다. 안전기획팀, 재해안전팀, 직업건강팀을 축으로 농업인 안전보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특별한 팀이다. 농업안전팀은 기술 전문가인 연구직과 현장 전문가인 지도직을 결합한 '융복합팀'으로 안전 기술과 결과를 현장에 빠르게 접목하고 확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농업인 대부분은 개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자영농 형태로 일하고 있어, 산업 안전망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바로 이 지점을 메우는 일이 농업안전팀이 존재하는 이유다.

팀을 총괄하는 김경란 팀장은 “농업안전팀은 연구직과 지도직이 융합돼 빠른 의사결정과 현장 대응이 가능하며, 국가 농업인 안전보건 관리를 최선에서 선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팀의 강점과 역할에 자부심을 드러냈다. 지금은 파견 인력을 포함해 아홉 명이 현장을 책임지고 있지만, 향후 '농업인안전센터'로 확대하여 정책 대응부터 현장 밀착 지원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고위험 재해를 저감과 인프라 확충에 집중

고령화와 기후위기가 겹치며 농업 현장의 위험 요인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실제로 2024년 농업인안전보험 기준 농작업 사망만인율은 2.99‰(만인율)로 국내 산업 평균(0.98‰) 약 3배에 달한다. 특히 농기계 사고와 고령층 피해가 많다. 농업안전팀은 '사망재해를 저감'과 '현장 안전 인프라 확충'을 핵심 과제로 삼고,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농업기술센터에 농작업안전관리자를 배

### 이달의 한마디



“농업인의 안전사고 대부분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스스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자율적 안전 실천에 동참해 주신다면 재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치해 농가의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현장 중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김임경 안전기획팀장은 “농업인 대부분이 자영농이라 제도적 보호가 미치지 어려운 만큼,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기반으로 한 예방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농업기술센터에 농작업안전관리자 등 현장 대응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기계 사고 대응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농기계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9.5배에 달하는 만큼, 기술 기반 예방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채혜선 재해안전팀장은 “IoT 기반 농기계 교통안전 시스템을 시범 보급해 사고 위험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현장 체감도가 높은 예방기술 확산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반복 동작과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농약 혼합·살포 과정의 노출 같은 직업성 질환 문제는 기후위기와 맞물려 심화되고 있다. 유지현 직업건강팀장은 “농작업 재해는 이제 돌발 사고가 아니라 기후와 체력 조건에 따라 상시적으로 누적되는 위험”이라며 “내년부터 온열질환 예방요원이 농가를 방문하여 냉방용품을 보급하고, 예방정보를 전달하는 건강관리 체계를 확대해 고령농의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농업인과 함께 만드는 '자율 안전관리 문화'

농업인안전팀은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 농업기술센터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국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안전재해 예방교육과 작목별 맞춤형 작업개선, 농작업안전관리자를 통한 농가안전점검, 농업인안전리더 양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 조례 제정(2025년 10월, 93개소)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의 결과는 현장에서 뚜렷한 성과로 나타난다. 충북 진천군의 작목별 안전관리 시범사업에서는 농기구 정리대, 냉풍 조끼 같은 보조장비 보급으로 온열질환과 넘어짐 사고가 30% 감소했다. 전남 고흥군은 IoT 농기계 교통안전시스템 도입으로 차량 감속률이 향상되고 농기계 사고 사망률이 40%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농업인안전팀은 농업인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 안전한 농업 환경, 지속 가능한 농촌의 기반

농업인안전팀 비전은 ‘농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농촌 일터 조성’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농업인 안전보험 기준 사망만인율을 2.22‰ 이하로 감축하고, 폭염 위험알람 장치 같은 미래형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확대와 농업인 건강과 안전 지원 관련한 법과 제도 기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란 농업인안전팀장은 “농업인의 안전사고 대부분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스스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자율적 안전 실천에 동참해 주신다면 재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며, 농업인 스스로가 안전 관리의 주체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은 앞으로도 농업인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농업인 안전보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농촌을 만들어가는 그들의 혁신적인 노력에 응원과 관심을 보낸다.

## Mini Interview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업인안전팀

### 김경란 팀장

“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는  
농업인 안전

”



농업인안전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장 맞춤형 안전'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기술이 있어도 농업인 스스로 안전을 인식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고령 농업인이 많다 보니, 농기계를 수리할 때 시동을 끄고 작업하는 기본 수칙이나 폭염에는 물·그늘·휴식처럼 단순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을 생활화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 습관을 농업인 스스로 익히고, 주변 사람에게도 권장하도록 돕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기술을 활용한 안전망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IoT 농기계 단말기와 LED 교통표지판을 현장에 보급해 사고 발생 시 실시간으로 농업인과 보호자에게 알리고 119 신고까지 연결됩니다. 현재는 전남을 시작으로 24시간 119 긴급대응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혼자 작업하는 고령 농업인이 사고를 당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과 현장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의 노력도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기계 사고와 온열질환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농업인 안전관리 예산도 점차 확대되어 보다 많은 농가에 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안전팀은 농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농촌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 실천을 가장 중요한 수칙으로 여기고, 바쁘시더라도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함께 일하는 동료와 가족에게도 이를 권장하며 서로를 챙긴다면 우리 농촌 일터는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과 건강을 지키며 아흔 살, 백 살까지도 활기차게 농업 활동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